



##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연구

김 지 숙\*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Mother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s, and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im, Ji Sook\*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ir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their mothers' the perception of negative emotions, and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investigate whether the emotional expressions and responses to negative emotions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s were related to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ir young disabled children. **[Method]** There were a total of 60 children, 30 pairs of mothers, and 3 to 6-year-old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perception of negative emotions, and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measured through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leted by the mothers, and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measured by the teacher.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ed positive expressions more significantly than negative expression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xpression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in terms of negative emotions,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sponded that they did not know much about negative emotions but they recognized that negative emotions were important, and they recognized negative emotions as emotions that their children naturally experience. Also, it was found that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e supportive response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more significantly than non-supportive responses. Third, the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f mothe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Fourth, in the supportive responses of the mothers' reactions to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emotion-centered response and the emotional expression encouragement response were related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clusion]** It was partially confirmed that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mothers' reactions to the negative emotions of children are related to the emotion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parental education that can guide the use of suitable coping methods for deal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Key Words** : Emotional expressivity, Mother' 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수어교원과 교수(jskim@knuw.ac.kr)  
Professor, Dept. of Korean Sign Language Teach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유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더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20)은 전국의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당사자 총 777명을 대상으로 COVID-19 전후의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은 COVID-19 이전 시기보다 심리·행동적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졌는데 특히 정서불안행동, 자해행동, 상동행동 등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들을 돌보는 양육자들도 코로나 이전시기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각각 M=3.08, M=3.31점)와 우울감(각각 M=1.66, M=2.13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COVID-19는 장애인 가족들의 일상적 생활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유아의 정서적 문제들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그들을 돌보는 가족의 심리 및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정선(2008)은 부모의 양육 부담감은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을 낮춰 더 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하였다.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의 원인 및 수준은 다르지만(이지경, 2013), 장애유아의 어머니들이 대체로 행복수준이 낮고,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선옥, 김성훈, 2014; 김호연, 강창욱, 2011; 정계숙 외, 2013)를 보았을 때 장애유아어머니들의 정서적 어려움은 COVID-19 이전 시기보다 더욱 증가하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적 어려움은 장애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Neece와 Baker(2008)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아동의 사회적 기술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영순(2008)은 어머니의 낮은 행복감과 높은 양육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아의 정서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적 어려움은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유아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어린시기부터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게 되고, 유아는 부모가 표현한 정서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모방하게 되며, 부모가 자신의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정서표현 규칙과 방법을 배워가게 된다(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Halberstadt, 1986). Eisenberg, Cumberland와 Spinard(1998)는 이러한 과정을 정서사회화(emotional socialization)라고 하였으며, 부모의 정서사회화 과정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parental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 ERSB)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의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더 많이 촉진한다고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행동으로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몇 연구자들은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 향상 및 문제행동 감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제안하였다(Green, & Baker, 2011; Légaré et al., 2019).

장애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서사회화 행동 연구들은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서수경, 2016; Green, & Baker, 2011; Légaré et al., 2019; Paczkowski, & Baker, 2007).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개인이 영속적으로 나타내는 얼굴표정을 포함한 비언어적·언어적 정서표출 유형(Halberstadt et al., 1995)으로,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었다. 일반유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정서를 표현할 때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권연희, 2012; 문경희, 남민우, 2020). 이에 반해 Green과 Baker(2011)는 5세~8세 지적장애아동어머니와 일반아동어머니 180명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반아동의 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반면,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는 덜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는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일반유아어머니들은 긍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모방과 전염 등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 유아의 정서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증가하였고(Cassidy et al., 1992),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증가하였다(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Halberstadt, & Ezton, 2003). 즉 가정 내에서 장애유아어머니들이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한다면 자녀들도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가정 내에서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일반유아어머니들과 달리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지를 조사하고, 일반유아어머니들과 유사하게 장애유아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이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정서사회화 행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다(Jacobs et al., 2019; Légaré et al., 2019; Paczkowski, & Baker, 2007).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 및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주며, 지지적인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구분하여 연구

되었다(Fabes, Eisenberg, & Bernzweing, 1990). 지지적 반응에는 자녀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 격려해주거나 기분이 다시 좋아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 감정표현격려,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이 있으며, 비지지적 반응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등 최소화반응, 스트레스반응, 처벌적 반응이 있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문제중심반응, 정서중심반응, 감정표현격려 등과 같은 지지적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들이 또래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대처전략에서도 긍정적인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강희연, 강문희, 1999),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또래에게 인기가 높았으며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갈등 상황도 잘 해결하였다(이지영, 이강이, 2021;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이와 반대로 어머니들이 처벌적이고 스트레스 반응 등의 비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자기조절능력이 낮았고(정슬기, 허혜경, 2016), 공격성이 높아졌다(송현정, 김정희, 2021).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어머니를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연구(Légaré et al., 2019; Paczkowski, & Baker, 2007)하였다더라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유형을 합산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만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전체적인 어머니의 반응유형 경향과 구체적인 하위반응유형의 특성을 알 수 없어 중재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고, 전체적인 반응유형의 경향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유아어머니들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정서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윤은미, 2020; 정윤경, 박혜진, 2012). 어떤 장애유아어머니는 긍정적 정서를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어떤 장애유아어머니는 부정적 정서를 비난 및 무시 또는 제거되어야 할 경험으로 인식한다. 특히 부정적 정서를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하지만, 또 어떤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는 나쁘고,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간주하여 유아들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비난하거나 축소 또는 무시할 수 있다. 즉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반응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기술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Légaré et al., 2019; Paczkowski, & Baker, 2007) 장애유아어머니들의 바람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유아어머니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유형의 특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장애유아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장애유아의 사회정서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장애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행동과 발달장애유아의 공격성(서수경, 2016), 뇌성마비유아의 부적응(안소연, 2008) 등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으며,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유형을 합산하여 연구하였으며,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없었다. 따라서 장애유아와 어머니의 정서표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장애유아어머니와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을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반응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장애유아어머니의 바람직한 태도와 대응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 내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기관에서 관찰된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 정서적 균형을 이루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 1) 장애유아어머니와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은 어떠한가?
- 2)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특성은 어떠한가?
- 3)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은 관련이 있는가?
- 4)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은 관련이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통합어린이집 5곳에 재원중인 만 3~6세의 장애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0쌍, 그리고 장애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10명이었다. 장애유아어머니의 설문지 30부와 담임교사의 설문지 30부, 총 60건의 자료를 최종 자료로 선정하였다. 유아는 만 3세~6세가 되면 기질이 안정화되고,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유형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한유미와 손경화(2004)의 연구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연령범주를 선정하였다.

장애유아 30명 중 만 3세는 6명(20.0%, 남아 2명, 여아 4명), 만 4세는 12명(40%, 남아 7명, 여아 5명), 만 5세는 6명(20.0%, 남아 4명, 여아 2명), 만 6세는 6명(20.0%, 남아 2명, 여아 4명)이었으며, 장애유아의 평균연령은 5.0세(SD=1.08)로 범위는 3.3세에서 6.9세였다. 출생순위에서는 외동이 12명(40.0%), 첫째가 11명(36.7%), 둘째가 6명(20.0%), 셋째가 1명(3.3%)이었다. 장애유아들은 통합어린이집 통합학급에 배치된 유아들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기준으로 20명(66.7%)은 발달지체, 4명(13.33%)은 자폐성장애, 6명(20%)은 뇌병변장애였다.

장애유아어머니의 연령은 만 35세 이하는 7명(23.3%), 만 36세~40세까지 16명(53.3%), 만 41세 이상은 7명(23.3%)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7명(23.3%), 대학교 졸업이상 23명(76.7%)이었으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들은 12명(40.0%)이었고, 나머지 18명(60.0%)의 어머니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 모든 연구 참여 가족들은 조부모 없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 2. 연구 도구

#### 1)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berstadt 외(1995)가 개발한 SEFQ(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의 간편형 척도를 여은진(2009)이 변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보이는 정서표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정서표현 도구는 크게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 두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범주는 12문항으로 총 24문항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자신의 행동에 근거하여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자주한다' (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장애유아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실제 표준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대상 유아의 이름을 적은 후 ‘자녀에게’ 라는 상황을 제공하였다(정운경, 박혜진, 2012). 긍정적 정서표현의 총점 범위는 12~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표현의 총점 범위는 12~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80이며, 긍정적 정서표현은 .87,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84였다.

## 2)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의 EEQ(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하정(1997)이 번안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정서표현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정서표현(5문항)을 제외하고, 부정적 정서표현(4문항)과 긍정적 정서표현(7문항)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검사와 채점은 담임교사가 평정하였으며,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유아를 맡은 지 6개월 이상이 된 자로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Likert식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교사가 관찰한 후 체크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84이며, 긍정적 정서표현은 .71, 부정적 정서표현은 .79였다.

## 3)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윤은미(2020)가 개발(Cronbach's  $\alpha$  .75)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명의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내용 자문을 받아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총 23문항 중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일반적 인식 2문항(부정적 정서의 이해, 부정적 정서의 중요성)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일반적 인식 2문항(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태도) 등 최종 4문항을 선정하였다.

## 4)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가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를 배주희(2011)의 번안을 토대로 유아교육전문가 3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CNES는 지지적 반응 35문항, 비지지적 반응 35문항으로 총 72문항이었으며, 지지적 반응은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으로 각각 12문항이었고,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 스트레스반응으로 각각 12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어머니가 체크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였다. 장애유아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실제 표준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대상 유아의 이름을 적은 후 ‘자녀에게’ 라는 상황을 제공하였다(정윤경, 박혜진, 2012).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은 세 가지 하위영역을 합하여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두 반응 모두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적 반응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였고, 하위영역별로 감정표현격려반응은 .83, 정서중심반응은 .80, 문제중심반응은 .85였다. 비지지적 반응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였고, 하위영역별로 최소화반응은 .71, 처벌반응은 .89, 스트레스반응은 .87이었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사전에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허락을 받고,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질문지의 종류와 응답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시설장을 통해 담임교사와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으며, 회수한 후 우편으로 수합하였다. 장애유아어머니와 교사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어머니용 45부와 교사용 45부로 총 90부였는데 총 60부만이 회수(어머니용 30부, 교사용 30부)되었고,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로 장애유아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검증 및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차이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하위 반응 유형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여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장애유아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

#### 1)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

장애유아어머니들의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8.53, p<.05$ ).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은 긍정적 정서표현을 부정적 정서표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test results for emotional expressivity of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Variable	N	M(SD)	df	t	p
Positive expressivity	30	4.38(.59)	58	8.53	.000***
Negative expressivity	30	2.88(.77)			

\*  $p<.05$ , \*\*  $p<.01$ , \*\*\*  $p<.001$

## 2)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87, p>.05$ ). 즉 장애유아들은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은 유사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test results for emotional expressivity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Variable	N	M(SD)	df	t	p
Positive expressivity	30	4.43(1.54)	58	1.87	.07
Negative expressivity	30	3.81(.98)			

\*  $p<.05$ , \*\*  $p<.01$ , \*\*\*  $p<.001$

## 2.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

### 1)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정서의 이해, 부정적 정서의

중요성, 부정적 정서의 경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태도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Mother's Perceptions of Negative Emotions (N=30)**

구분	내용	N(%)
Understanding negative emotions	I know well	2(6.7)
	I know a little	8(26.7)
	I have heard	<b>11(36.7)</b>
	I do not know	7(23.3)
	I have no idea	2(6.7)
The importance of negative emotions	Very Important	6(20.0)
	Important	<b>15(50.0)</b>
	Moderately Important	6(20.0)
	Slightly Important	3(10.0)
	Not Important	0(0.0)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motions to experience naturally	<b>19(63.3)</b>
	Emotions that should not be experienced if possible	11(36.7)
Attitudes toward negative emotions of children	It should be respected as a natural part of life	6(20.0)
	Over time, it will disappear on its own	0(0.0)
	It has to change to a positive emotions	6(20.0)
	You need to guide and discipline	3(10.0)
	It is resolved by spitting out your emotions.	2(6.7)
	Identify the context and cause of expressing negative emotions.	<b>13(43.3)</b>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장애유아어머니 11명(36.70%)이 ‘들어본 적이 있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8명(26.70%)이 ‘조금 알고 있다’, 7명(23.35)이 ‘잘 모른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18명(60.05%)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8명(26.70%)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15명(50.0%)이 ‘중요하다’, 6명(20.0%)이 ‘매우 중요하다’, 6명(20.0%)이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즉 21명(70%)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이 부정적 정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장애유아어머니 19명(63.3%)이 ‘자연

스럽게 경험하는 정서'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1명(36.7%)이 '가능하면 경험하지 않아야 할 정서' 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63.3%), 일부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를 가능하면 경험하지 않아야 할 정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36.7%).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태도에 관한 질문에는 장애유아어머니 13명 (43.3%)이 '상황과 원인이 무엇인지 살핀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6명(20%)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존중받아야 한다' 및 '긍정적 정서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동일하게 응답하였으며, 3명(10%)이 '지도와 훈육을 해야 한다' , 2명(6.7%)이 '감정을 분출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즉 43.3%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상황과 원인이 무엇인지 살핀다고 하였으며, 20%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20%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0%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지도와 훈육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2)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

### (1)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차이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4>,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6.54, p<.05$ ). 즉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들은 비지지적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test results of mother' 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

Variable	N	M(SD)	df	t	p
Positive expressivity	30	3.06(.40)	58	6.54	.000***
Negative expressivity	30	2.32(.47)			

\*  $p<.05$ , \*\*  $p<.01$ , \*\*\*  $p<.001$

### (2)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상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지적 반응에서 문제중심반응의 평균은 3.13, 정서중심반응의 평균은 3.08, 감정표현격려의 평균은 3.00이었다. 비지지적 반응에서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은 2.60, 최소화 반응의 평균은 2.44, 처벌적 반응의 평균은 1.91로 나타났다.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지지적 반응에서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감정표현격려를 가장 적게 사용하였으며, 비지지적 반응에서 스트레스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처벌적 반응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전체적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중심반응 및 감정표현격려, 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 반응 순으로 사용하였다.

<Table 5>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mother' 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 (N=30)

Variable	Minimum	Maximum	M	SD
Support responses	2.47	3.72	3.06	.40
Expressive encouragement	2.00	3.83	3.00	.46
Emotion-focused responses	2.42	3.83	3.08	.39
Problem-focused responses	2.33	4.00	3.13	.50
Non-support responses	1.44	3.25	2.32	.47
Punitive responses	1.08	3.17	1.91	.58
Minimization responses	1.67	3.25	2.44	.39
Distress reactions	1.33	3.92	2.60	.65

### 3. 장애유아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각각  $r=.04$ ,  $p>.05$ ). 이와 달리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38$ ,  $p<.05$ ),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41$ ,  $p<.05$ ). 즉 장애유아어머니가 가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기관에서 장애유아들은 긍정적 정서를 덜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는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Inter-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30)**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72**	1									
(3)	.04	-.14	1								
(4)	-.38*	.41*	-.01	1							
(5)	.51**	.45*	.10	-.47**	1						
(6)	.46*	.41*	.36	-.61**	.73**	1					
(7)	.28	.19	.43*	-.40*	.74**	.84**	1				
(8)	.03	-.11	-.16	.21	-.37*	-.16	-.08	1			
(9)	-.15	-.28	-.44*	.66**	-.48**	-.63**	-.45*	.59**	1		
(10)	.02	-.12	-.40*	.59**	-.37*	-.54**	-.50**	.50**	.72**	1	
(11)	.40*	.33	.30	-.54**	.89**	.92**	.93**	-.21	-.57**	-.56**	1
(12)	-.11	-.23	-.45*	.63**	-.47**	-.56**	-.43*	.70**	.93**	.88**	-.55**

\* $p < .05$ , \*\* $p < .01$

Note. (1)Child 's Positive expressivity, (2)Child 's Negative expressivity, (3)Mother's Positive expressivity, (4)Mother's Negative expressivity, (5)Expressive encouragement, (6)Emotion-focused responses, (7)Problem-focused responses, (8)Minimization responses, (9)Punitive responses, (10)Distress reactions, (11)Supportive maternal reactions, (12)Non-supportive maternal reactions

#### 4.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r=.40, p<.05$ ),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r=.33, p>.05$ ). 또한 장애유아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각각  $r=-.11, p>.05, r=-.23, p>.05$ ).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지지적 반응을 많이 사용 할수록 장애유아들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의 하위유형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장애유아어머니들의 감정표현격려와 정서중심반응과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각각  $r=.51, p<.05, r=.46, p<.05$ ) 및 부정적 정서표현(각각  $r=.45, p<.05, r=.41, p<.05$ )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표현격려와 정서중심반응을 많이 표현할수록 장애유아들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유아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하거나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등의 지지적 반응을 많이 표현할수록 장애유아들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함께 부정적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3세~6세의 장애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0쌍 그리고 10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유아어머니와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과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을 알아보고,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특성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장애유아에게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 $t=8.53, p<.05$ ). 이러한 결과는 일반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권연희, 2012; 문경희, 남민우, 2020)와 일치하였고,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Green과 Baker(2011)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지적장애 부모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Green과 Baker(2011)의 연구 결과와 달리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분노, 슬픔, 화 등의 부정적 정서보다 기쁨,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지 않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장애유아어머니들이 긍정적 정서를 더 높게 표현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질문지를 통해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조사하였으므로 장애유아어머니들이 무의식적으로 설문 조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서표현 인식 수준과 실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아들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8.53, p>.05$ ). 즉 장애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보다 더 많이 표현할거라는 예상과 달리,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장애유아들이 만 3세를 제외하고 약 2년 이상 동안 한 기관에 지속해서 다니고 있어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가 잘 형성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거나 교사의 관찰시점이 2학기말이어서 장애유아들이 기관에 잘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기관의 지속성 여부와 관찰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며, 특히 질문지를 통한 조사가 아닌 직접관찰을 통해 일관성있는 데이터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반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정서의 이해 및 중요성, 유아의 부정적 정서의 경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태도 등 총 4문항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의 이해에 대한 질문에 60.05%가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80%이상이 중요 및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장애유아어머니들은 63.3%(19명)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 라고 응답하였고, 36.7%(11명)가 '가능하면 경험하지 않아야 할 정서' 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부정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 라고 인식하는 장애유아어머니의 자녀들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44.5, p=.001$ ). 부정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 라고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표현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 간에 친밀감을 높게 형성하며, 더욱이 자녀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교육의 기회로 여긴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이 부정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 라고 인식하는 것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질문에 '그 상황과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가장 바람직한 반응으로 응답하였으며(13명, 43.3%),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삶의 자연스러운 존재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6명, 20%)' 라는 응답과 '긍정적 정서로 바뀌어야 한다(6명, 20%)' 라는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애유아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응답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장애유아어머니의 문제중심반응과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가지 가정은 장애유아어머니가 문제중심반응을 자녀에게 잘 못 사용했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가정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태도에 대한 질문에 36.67%(11명)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이 덜 바람직하게 응답(예, 긍정적 정서로 바뀌어야 한다, 지도와 훈육을 해야 한다, 감정을 분출하면 해결될 것이다)하였는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지지적 반응 중 문제중심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갈등상황 해결, 또래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강희연, 1997; 이지영, 이강이, 2021), 발달지체 유아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므로 (Paczkowski, & Baker, 2007),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정서중심반응 및 감정표현격려반응과 함께 문제중심반응을 전략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비지지적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 $t=6.54, p<.05$ ).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장애유아어머니들의 하위 반응유형의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는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서중심반응 및 감정표현격려반응, 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 반응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정슬기, 허혜경, 2016; Eisenberg, & Fabes, 1994)과 일치한다.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일반유아어머니들과 유사하게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지적 반응 중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정서중심반응과 감정표현격려반응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장애유아들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 내에서 장애유아어머니들이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장애유아들이 긍정적인 정서는 덜 표현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사용하는 부정적 정서표현이 장애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 정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에 관련성이 없었는데, 이것은 장애유아들이 어머니가 표현한 긍정적 정서의 의미를 낮게 또는 잘못 인식하거나(Wieland, & Baker 2010),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강도가 낮아 자녀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 했기 때문일 수 있다(Green, & Baker, 2011; Légaré et al., 2019). 특히 지적장애아동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없음을 밝힌 Green과 Baker(2011)는 지적장애아동들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가 더 과장되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강도수준에 따른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예상반응 조사를 통해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유아의 정서와 정서의 강도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강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들의 지지적 반응과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나 비지지적 반응과 자녀의 정서표현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지지적 반응을 많이 사용할수록 장애유아들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강희연, 강문희, 1999; 이지영, 이강이, 2021; Eisenberg, Fabes, & Murphy, 199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장애유아들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지지적 반응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정서 반응의 하위유형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중 감정표현격려반응과 정서중심반응을 많이 사용할수록 장애유아들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증가하였으나 예측과 달리 부정적 정서표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아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반응 및 정서중심반응과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정서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해보도록 격려하는 지지적 반응이 정서처리기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Paczkowski, & Baker, 2007).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반응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정은 장애유아는 가족들의 영향도 받지만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의 영향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와 교사의 자기보고를 통해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추후 직접관찰을 통해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강도와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의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도 함께 연구하여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 증가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성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성과 관련이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부정적 정서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유아어머니들에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표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참여자의 사례수가 적고, 정서인식 특성이 다른 자폐성 장애유아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연구되었으며, 직접관찰이 아닌 장애유아어머니와 교사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수를 확장하여 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자기보고형식이 아닌 직접관찰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n, S. H. (2008). The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behaviors to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of the child with cerebral palsy.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안소연 (2008). 뇌성마비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서표현성 및 양육행동과 뇌성마비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e, J. H. (2011). The effects of children's sex, age,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the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배주희 (2011). 유아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ssidy, J., Parke, R., Vygotsky, L., & Braungart, J.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hung, K. S., Park, J. K., Choi, E. S., Seo, B. S., & Park, H. K. (2013). A study of factors which influence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1), 153-174.  
[정계숙, 박재국, 최은실, 서보순, 박희경 (2013). 장애유아·비장애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연구, 33*(1), 153-174.]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Mother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s, and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307

-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Unpublished Manuscript, Arizona State University.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reen, S., & Baker, B. (2011). Parents' emotion expression as a predictor of child's social competence: Children with or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5(3), 324-338.
- Ha, J. (1997).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on depression: Integrative study on human'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하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lberstadt, A. G., Cassidy, J., Sh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lberstadt, A. G., & Ezton, K. L. (2003). A Meta-Analysis of family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Marriage & Family Review*, 34(1-2), 35-62.
- Han, Y. M., & Shon, K. H. (2004). A study on the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 197-206.
- [한유미, 손경화 (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Jacobs, E., Mazzone, S., Simon, P., & Nader-Grosbois, N. (2019). The unexpected impact of parental emotional socialization on theory of mind and emotion regulation: The Case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sychology*, 10(9), 1302-1332.
- Jeong, S. G., & Huh, H. G. (2016). A research on effects of mothers' reactions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skills-focused on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1(1), 1-23.
- [정슬기, 허혜경 (2016). 어머니의 반응유형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지원연구**, 1(1), 1-23.]
- Jeong, Y. K., & Park, H. J. (2012). Korean parent's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 and emotion related parenting.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5(2), 107-128.
- [정윤경, 박혜진 (2012). 한국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07-128.]

Kang, H. Y.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parent's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 preschoolers' coping styles and peer acceptance.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강희연 (199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ang, H. Y., & Kang, M. H. (2014).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s, coping styles and peer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3), 171-182.

[강희연, 강문희 (201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Kim, H. Y., & Kang, C. W. (2011). A Survey of parents' education & nurturing stress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wasung-c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4), 335-359.

[김호연, 강창욱 (2011). 화성시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 및 부모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335-359.]

Kim, S. O., & Kim, S. H. (2014). Differences in childcare stress and coping behaviors of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and mothers of non-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5(1), 17-29.

[김선옥, 김성훈 (2014).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들간 양육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차이. *장애아동인권연구*, 5(1), 17-29.]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y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Ko, J. S.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ing-burde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mothers of the child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1), 1-17.

[고정선 (2008).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부담감,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상호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1-17.]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20). *The living conditions and service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ring COVID-19 pandemic*. (978-89-6921-003-6). <https://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변화 연구**. 울산: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978-89-6921-003-6). <https://www.koddi.or.kr>.]

Kwon, Y. H. (2012). Children's social withdrawal in relation to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 13-24.

[권연희 (2012).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정서표현성. *대한가정학회지*, 50(5), 13-24.]

Lee, J. K. (2013). Associa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feelings of guilt

- among Korean mothers of adolescents with autism.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4(2), 115-141.
- [이지경 (2013). 청소년기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와 양육스트레스와 죄책감과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2), 115-141.]
- Lee, J. Y., & Lee, K. Y. (2021).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Mediating role of parent's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Korean Journal Child Studies*, 42(1), 119-134.
- [이지영, 이강이 (202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1), 119-134.]
- Lee, K. Y., Choi, I. S., & Sung, M. Y. (2007). The relation of parents'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otion in thei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Child Studies*, 28(3), 187-199.
-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과 유아의 정서지식 및 정서반응. **아동학회지**, 28(3), 187-199.]
- Lee, Y. S.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 of mother's childrearing stress and emotional presentation of children.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2(1), 299-318.
- [이영순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아의 정서표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1), 299-318.]
- Légaré, C., Morin, D., Poirier, N., & Nader-Grosbois, N. (2019).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Difference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Psychology*, 10, 2062-2079.
- Moon, K. H., & Nam, M. W. (2020). The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of father's and mother's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The Korea Society for Children's Media*, 19(2), 39-64.
- [문경희, 남민우 (2020).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9(2), 39-64.]
- Neece C. L., & Baker B. L. (2008). Predic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in middle childhood: The roles of child intellectual status, behaviour problems and social skill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2(12), 1114-1128.
- Paczkowski, E., & Baker, B. L. (2007). Parenti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 The role of self-master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1(6), 435-446.
- Seo, S. Y. (2016). Impact of the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f mothers of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ir children's institutional maladjustment. Master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 [서수경 (2016). 발달장애유아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정서표현성이 자녀의 시설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ong, H. J., & Kim, J. H. (2021). The effect of matern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A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n emotional expressiveness.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 Counseling, 11(1)*, 137-157.

[송현정, 김정희 (2021). 아동의 부정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 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11(1)*, 137-157.]

Wieland, N., & Baker, B. L. (2010). The role of marital quality and spousal support in behaviour problem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7)*, 620-633.

Yeo, E. J. (2009).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emotionality, mother's emotionality, mother'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Doctoral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여은진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Yun, E. M. (2020). Study of prospective early childhood educators' perception to a child's negative emotion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 1-23.

[윤은미 (2020).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1)*, 1-23.]

<국문 초록>

##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연구

김 지 숙

**[목적]** 본 연구는 장애유아어머니와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 그리고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통합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세-6세의 장애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0쌍으로 총 60명이었다.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및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은 담임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결과]** 첫째, 장애유아어머니는 부정적 표현보다 긍정적 표현을 더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아의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나, 부정적 정서가 중요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유아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비지지적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더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정서표현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넷째,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는 지지적 반응 중 정서중심반응과 감정표현격려반응이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과 관련이 있었다. **[결론]**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 관련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표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유아어머니에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장애유아